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7.(수) 총 4매(본문2)	
담당 부서 항공교통과	담당 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, 주무관 고한승 • ☎ (044)201-4299, 4301	
보 도 일 시	2018년 2월 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8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울주에 이어 910번째... “내달 29일부터 김제·고령에도 드론 뜬다” 드론 동호회·지자체 의견 수렴한 수요자 중심의 전용 비행구역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김제,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(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)을 각각 1개소를 신설한다.
 -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9,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.
 -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미터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,200,000 제곱미터, 고령이 약 20,100 제곱미터이다. 특히,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,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(1,034,000 제곱미터)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.
 -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.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하여 청라, 미호천,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, 김제와 고령지역에 설정되는 드론 전용구역은 이번이 처음이다.
 -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되었다.

-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,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되었다.
-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“UA* 39 GIMJE (김제)와 UA 40(GORYEONG)”이며,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.
 - * UA: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(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)
- 김제, 고령지역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으로,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며,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, 지자체,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김남극 사무관(☎ 044-201-42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참고 1

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지역

□ 김제 드론전용 비행구역



□ 고령 드론전용 비행구역



참고 2

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(UA) 도면

□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총 31개소(드론 전용 10개소, 신설예정 포함)

